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사도 1, 9)

주님 승천 대축일 · 홍보 주일

제1독서 사도행전 1, 1~11

화답송 시편 47(46), 2~3, 6~7, 8~9 (◎ 6)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1.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
2.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3.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제2독서 에페소서 1, 17~23

복음 환호송 마태 28, 19, 20 참조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루카 24, 46~53

영성체송 마태 28, 20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www.catholicbusan.or.kr

2016년 성가정 축복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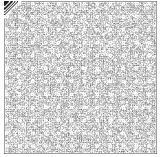
일시. 5월 13일(금) 19:30

장소. 이기대성당 ※ 참석자 전원 선물 증정

이 주간의 축일

♣ 8일 : 테시데라토, 디오니시오, 베네딕토 2세, 베드로, 보니파시오 4세, 비로, 빅토르 마우로, 아가티오, 오드리야노, 오토게르, 이다, 지브리안, 플레첼모, 헬라디오

기뻐하는 주님의 증인



김주현
도미니코 신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일곱 살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해 잘 모르는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할머니는 어디가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할머니는 저 먼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말씀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는 신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뵈었고 말씀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할아버지의 말씀들과 모습들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가끔씩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 생활을 끝내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세상을 떠나신 분은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설명하듯이 오늘 복음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설명합니다. 주님 승천은 공간의 하늘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하느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가서 이제 더 이상 공간적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곳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인간적인 체험과 기억으로 마음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공을 초월하여 수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더욱 잘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부대로 세상 끝까지 그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오늘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뿐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당신의 수난, 부활, 승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때에 성령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수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시공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고

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미사에 참례하여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듣고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일상에서 다가오는 고통과 시련을 자신의 십자가로 받아들일 때 수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아 우리도 참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기뻐하며 주님을 만나려 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봅시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채워주시는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승천을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합시다. **달맞이성당 주임**

지금까지

행복보다 소중한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때,
좋은 사람과 있을 때,
고요하게 머물 때,
아끼는 것이 생겼을 때,
소중한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갈 때,
이러한 순간들이 내겐 기쁨입니다.
이토록 소소하고 사소한 것들이 모여 이루는 평화.
꼭 지키고 싶고 언제까지나 지켜내고 싶습니다.



글·그림 :
이영 아네스 수필가

PBC부산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5.9(월)~10(화)
김주현 신부(달맞이성당 주임)
5.11(수)~14(토)
김동근 신부(태종대성당 보좌)

문자참여 #2340

◆ 사랑이 있는 세상 ◆

월~목 12:15~14:00

5.10(화) 함께 하는 여정

(기초공동체 초대 토크 코너)

출연 : 영궁성당 구역분과

◆ 신부들의 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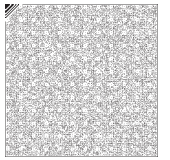
5.14(토) 13:00~14:00

진행 : 홍영택 신부(안락성당 부주임)

김병희 신부(호계성당 보좌)

김수환 신부(서대신성당 보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김 검 회 엘리사벳

맑고 푸른 계절, 엄마 품에서 자란 어린 이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오월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월을 성모님의 달로 정한 것은 단지 장미의 계절을 넘어, 인류구원의 협력자로서 생명(예수 그리스도)을 잉태하여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이어가고 분열과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에 화해와 평화, 사랑의 중개자이신 어머니 성모님께 가장 좋은 계절을 봉헌한 것이라 여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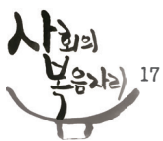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어머니와 성모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계기를 주었습니다. "한 생명을 품어 생사를 함께하기를 열달, 육천이백여 날을 소중히 키워 학교(수학여행)에 보냈더니, 주검으로 돌아온 내 새끼들..." 게다가 자신의 눈앞에서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차가운 바닷속 세월호에 갇혀 극도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 "엄마!"를 부르며 죽어가는 아이를 떠

올리며 울부짖는 어머니들을 보면서, 무죄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성모님을 보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기적을 바랐지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3~4일이 되자 희망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살아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엄마가 대신 갈게." "한 번만이라도 널 안아볼 수만 있다면, 만질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 세상의 어머니들은 한마음으로 슬퍼했고 위로와 연대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일각에서는 "이제 그만 해라!"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보상과 특혜를 얼마나 더 받으려 드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우들 사이에서도 보상과 특혜에 대한 음해성 문자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어머니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가족들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정작 유가족들은 어떤 보상이나 특혜를 요구한 적도 없었고, 단지 아이가 죽은 이유(진상규명)와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특검을 요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천 년 전, 예수님을 잃고 비탄에 빠진 성모님께 "이제 그만 해라, 지겹다."고 당당히 소리치는 이가 누구였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슬픔을 극복하여 다시 세상과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성모성월에 성모님의 삶을 묵상하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희생자들과 그 어머니들을 기억하며 묵주기도를 올립니다.

■ 정의평화위원회 busanjustice@naver.com



매체와 메시지 -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사도 1, 11)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 방식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여러 매체들이 앞다투어 여론조사를 하고 이런저런 분석을 했었지만, 정작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여론조사를 했던 매체들도 당황했고, 매체들의 여론조사를 여과 없이 수용했던 사람들도 당황했었다. 문제는 집 전화만으로 조사한 결과와 휴대전화를 포함한 조사 결과가 의미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났던 것. 즉 집 전화와 휴대전화라는 그릇이 달라지니까 그 속에 담기는 정보나 메시지가 달라져 버렸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여론조사의 상황뿐 아니라 정보의 전달과 수용이라는 일을 하는 매체들에서 흔하게 일어난다. 말하자면 관점의 차이(시각차)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매체만 바뀌어도 정보의 양이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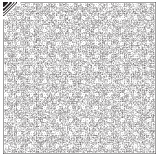
"갈릴래아 사람들"(사도 1, 11)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예루살렘은 온 세상에서 주님을 찾고, 전하는 교두보가 된다.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의 메시지(복음)를 하늘이라고 하는 매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 예루살렘, 온 세상, 공동체로 제자들의 매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메시지의 차원과 넓이가 달라져 버렸다.

2006년 31위, 2009년 69위, 2013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 다른 아닌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다. 총 180개 대상국 중에서 우리나라 순위의 추세가 이렇다.

메시지가 답답하거나 이상하면 매체를 의심하면 된다. 그리고 과감히 매체를 바꾸면 된다. 굳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이유가 없다. ■ 김상호 신부(신선성당 주임) airjazz@hanmail.net

'한마음한뎡' 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국가의 공적 지원과 여러 법정 단체들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계층과 소외된 이웃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어둠 속에 숨어있습니다.

사회사목국에서는 긴급성, 변화가능성(회복가능성) 등 몇 가지의 기준들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도움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이들의 사연을 선정하여 후보 '한마음한뎡'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도움으로(2013.5)

'오늘 하루도 무사히'라는 제목의 사연! 일용직으로 힘겹게 혼자 살아가던 형제님이 급성 백혈병에 걸렸으나 수술비가 없어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항암치료도 불투명한 상태로 목숨이 위태롭다는 긴급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로 즉시 수술을 할 수 있었고, 영양상태도 좋아져 항암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봉사자의 도움으로 성당에도 다니고 있으며 형제님은

"저를 살려주신 것은 모두 주님의 뜻"이라 말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2013.4)

2013년 4월. 아내는 갑상선 암에 걸려 투병 중이고, 남편은 아내의 간병과 병원비를 마련하던 중 육종 희귀병중 암에 걸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으며 월세 낼 돈이 없어 두 딸과 살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는...'라는 제목의 안타까운 사연.

사연 소개 후 이 가정에는 희망의 등불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전셋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어 병원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형제님은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선종하셨지만 도움 주신 분들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이 간직하고 가셨습니다.

1990년부터 '벼랑 끝에 선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한마음한뎡'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내 주신 정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생활비, 병원비, 학비를 지원하였고, 또한 지속적으로 교구 내 사회복지 시설과 본당 사회복지분과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구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지원 받은 모든 이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보내 주신 정성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 한마음한뎡 사연들은 교구 홈페이지 인터넷주보와 사회사목국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사회사목국(051-516-0815)

도움 주실 분

신협 131-016-582122
부산은행 101-2017-0218-01

예금주 : 천주교 부산교구



본당에 신부님이 새로 부임하면 늘 긴장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분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사제는 지나치는 객"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달래지요. 솔직히 본당의 주인은 본당 신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점을 신부님들께서 유념해 주신다면 서로 행복한 본당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요?

놀랐다고 할까요? 간이 철령했다고 할까요? 솔직히 적어 주신 글인만큼, 저도 솔직히 표현한다면..... 갑갑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고 본당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시다니, 더욱 그랬습니다. 물론 자매님이 일일이 껴주시는 경우를 살필 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제로서 사과를 드리고도 싶습니다. 그럼에도 자매님의 의견을 응원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교회는 사제의 것도 교우의 것도 아닌,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 떼를 돌보기 위해서 당신의 사제를 파견하시며 셋째, 자매님의 행위는 결

코 사랑의 판단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상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운우함만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파견하신 사제를 '지나가는 객'으로 여기다니요? 설사 신자들의 뜻과 다르게 사목을 해서 '영 아니다' 싶거나 이런저런 모두가 도무지 성에 차지 않을 때, 주님께서 이르신 방법은 명료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할 것!(1코린 1, 10~17 참조)

■ 장재봉 신부(선교사목국장) gajbong@hanmail.net

2016년 사제 피정



정 대침묵 속에 진행되는 이번 사제피정은 '사제의 삶'이란 주제로 특강, 성무일도를 겸한 미사 봉헌, 묵주기도, 고해성사, 성시간, 영적

'2016년 교구 사제 피정' (1차)이 지난 5월 3일(화)~6일(금) 양산 정하상바로영성관에서 있었다. 사제피정은 총 4차 걸쳐(매주 화~금) 5월 27일(금)까지 진행된다. 전 일

독서 및 묵상 등의 시간을 가진다. 이번 피정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은 사제들이 '기초공동체 복음화의 해'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리라 기대된다.

오순절평화의마을, '희망의 집' 생활관 축복식



는 축복식 강론 중에 "희망의 집은 주님의 치유의 정신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잘 반영된 집이다."며 "우리 사

지난 4월 28일(목) 14:00 오순절평화의마을(원장 : 박기흠 신부) '희망의 집' 생활관 축복식이 지역 각계 인사, 역임 사제 및 수도자, 후원 회원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구장 황철수 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이날 교구장 황철수 주교

회가 소외된 이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희망의 집'은 두 개의 건물로, A동은 가족식당, 남자 생활관, B동은 사무실, 다목적실, 여자 생활관으로 지어졌으며, 현재 213명의 노숙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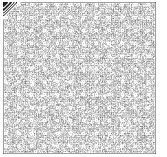
5지구 회장단, 동래 읍성 순례길 순례



5지구 회장단(지도 : 주영돈 신부)은 지난 4월 30일(토) 우리 교구 복자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가 살았던 동래 읍성을 순례하며, 신앙선조들의 신앙생활을 되새기

는 시간을 가졌다. 동래 읍성 순례길은 동래성당을 시작으로 장관청-동래향교·서장대(쉼터)-동래읍성 역사관-충렬사(안락서원, 기념관, 군관청)-동래부동헌-동래성당까지 약 3시간 코스이다. 순례를 원하는 성당 및 제 단체(10인 이상)는 동래성당 사무실로 연락하면, 순례해설자의 안내를 받아 순례할 수 있다. 동래성당 사무실 : 051-555-2295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우동
4월 24일(일) 대구대교구 일대 성지순례
주임 : 전동기 신부, 회장 : 문해진 실비노



무거
4월 28일(목) 거리 음악 선교, 기념 미사 봉헌
주임 : 김윤근 신부, 회장 : 송명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조셉 벌토 신부 일가 범일성당 방문



범일성당(주임 : 김영호 신부, 윤승식 신부, 회장 : 양홍식 토마스) 11대 주임신부(1928년~1939년)였던故 조셉 벌토 신부의 일가가 지난 5월 1일(일) 범일성당을 방문했다. 특별히 이날 벌토 신부의 조카 베르나르도 벌토 씨의 손녀 미리 클로에의 세례식이 있었다. 한편,故 조셉 벌토 신부는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안에 포함된 시복 예비 심사 대상자이다.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월 10일은 이병만(요셉) 신부님의 선종일입니다.(1993.5.10. 선종)

교 구

예비신학생 월모임

· 5.8(일) 13:30 · 신학대학
문의: 629-8760(성소국)

2016 천주교부산교구 어울림한마당

· 5.8(일) 10:00~16:00 · 스포원파크 실내체육관
준비물: 미사도구, 운동복장
※ 후원물품 기증 받습니다
문의: 464-3909 / 주최: 사회사목국

5월 울산대리구 혼인 강좌 안내

· 5.22(일) 14:00~17:50 · 복산성당
참가비: 1쌍 4만원(신축순 80쌍) / 혼인강좌 교육부
사전 접수: (052)201-6505(당일 접수 받지 않음)

ME부산협의회 35주년 행사

· 5.14(토) 10:00
· 부산가톨릭대학교 대강당
10:00 기념미사 교구장 황철수 주교 주례
대상: ME 수료부부(참석예약 필수)

본 당

염궁성당 은혜의 밤

· 5.14(토) 18:00 / 강사: 조영만 신부
내용: 미사, 강의, 안수 / 문의: 314-6235

용호성당 은혜의 밤

· 5.16(월) 19:00 / 내용: 찬미, 강의, 미사, 안수
강사: 장훈철 신부(석포성당 주임)
주제: 믿음의 가치와 진정한 행복
문의: 010-3537-2046

가야성당 5월 성령 치유 대피정

· 5.10(화) 12:30~17:00 · 가야성당
강사: 윤용선 신부(용호성당 주임), 이병주 신부
(미사, 안수, 고해성사) / 문의: 010-5511-6593

석포성당 교중미사 반주자 구함

제출서류: 교적사본, 이력서
문의: 625-2101(사무실)

울하성당 성가대 반주자 구함

문의: (055)329-6886(사무실)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5.9(월) 19:30 · 가톨릭센터 소극장
주제: 만덕의 봄, 내집에 살 권리
강사: 최수영 대표(만덕주민공동체)
문의: 465-9508 / 무료 강의와 미사

오순절평화의마음을 후원회 미사

부산: 5.9(월) 11:00 · 남천성당
문의: 782-0765

빈민사목 후원미사와 반나절 심신라이프

· 5.9(월) 10:00~15:00 / 참가비 없음(점심 제공)
· 문현성당 / 문의: 467-1045, 010-4274-2525

빈민사목 반송 빛돌레 나눔가게

의류, 깨끗한 운동화, 생활용품(가방, 신발, 액세서리)
문의: 542-0242, 467-1045, 010-2886-6467

Arca 청년성서모임 폐제미사

울산: 5.9(월) 20:00 울산병영순교성지성당
부산: 5.11(수) 20:00 초량 성서교육원
주례: 박진성 신부(울산), 김정완 신부(부산)
문의: 469-0761, cafe.daum.net/psbiblefamily

프란치스코 교황 선포 '자비의 특별히년' 기념공연

예수님의 자비의 얼굴인 '사도 바오로'의 생애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의 얼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

**IMAGO DEI
하느님의 모상**

[일 시] 5/18(수)~21(토) **[장 소]** 푸른나무교육관 로고스 홀

18(수) 15:00(초대)
19(목), 20(금) 19:30
21(토) 17:00

[문 의] 051-462-1870 **[관 람 권]** 2만원(단체 할인 1만원)
[문 의] 051-462-1870 **[관 람 권]** 2만원(단체 할인 1만원)
5/18(20명), 5/19~21(각 10명) **[문 의]** 051-462-1870
(가톨릭센터) (교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주최: 가톨릭센터 | 주관: 가톨릭센터, 가톨릭문화기획 IMD, 떨기나무 | 후원: 부산평화방송, 전산홍보국, 청소년사목국



다양한 예물과 시계
각종 보석 도매, 목주반지 전문
서울공예사
법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631-5006, 631-5007
황인환(가롤로) · 김경자(모니카)

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패들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

since 1977
보이지 않는 보청기
디지털보청기 전문 취급
한독보청기
김무남(아우구스티노)
632-2248, 2360

물 새는 곳을 정확히 찾아, 보수
삼일누수탐지공사
수도배관, 보일러배관 등 각종 누수
인터넷 검색어 : 삼일누수
전화 : 202-3011
이 국 영(베드로)

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 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동국자동차매매상사
신차, 중고차, 매매, 수출, 할부, 패차
상담. 010-3599-6420
현 종 삼(요셉)
부산 1단지 관여 제14호

금석 · 제이스
귀금속 도소매
각종 보석, 다양한 예물과 패션제품, 커피링
목주반지 전문 / 박정희(요셉), 손해경(요세파)
644-3630~1, 010-3558-3630
010-8661-3631
현대백화점 맞은편 귀금속 테마거리 중간 단독 매장

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성모치과
원장. 송 치 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출구 50m

거 제 주 단
주단, 포목, 혼수, 예단 도소매
박대수(야고보), 최복순(테레사)
점포: 632-0696, 집: 416-9168
후대폰: 010-9331-6633
진사장 1층 주단부 318호 1층 8호문 안쪽 화장실 옆

안평노인건강센터
치매 · 중풍 돌봄시설
장기요양기관
518-6838

부산ME 소개모임

· 5.16(월) 20:00 남천성당
 · 5.23(월) 20:00 연지성당
 337차 ME 주말: 5.27(금)~29(일)
 사랑방 ME 소개모임: 수시
 문의: 010-2837-8814, www.mekorea.or.kr/bs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net/catholic-sinhak) / 문의: 462-0334(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Arca 청년성서모임 탈출기 연수생 모집

연수: 6.3(금)~6(월) / 모집: 5.20(금)까지
 대상: 청년성서 탈출기 그룹원
 회비: 12만원(학생 지원가능)
 문의: 469-0761, cafe.daum.net/psbiblefamily

시각장애인교회 상설고해소 운영

· 매주 화요일 15:00~17:00 / 문의: 464-3909

교육 · 모집 · 기타

사랑의성모수녀회BPS 가족 미사

· 5.9(월) 14:00 · 수녀원
 문의: 756-3266, 010-5648-3266

비아회 원로 사제를 위한 미사

· 5.9(월) 10:00 · 오룬대순교자성지성당
 주례: 박유식 신부 / 문의: (055)367-2214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회 미사

· 5.10(화) 10:00 · 이기대성당
 · 5.11(수) 10:00 · 월평성당
 · 5.20(금) 10:00 · 사직대진성당
 · 5.9(월) 부곡동 수녀원 미사 없음(5.23(월)로 변경)
 문의: 582-1774, 010-9081-1743

오룬대순교자성지

상설고해소 안내 문의: 515-0030

1. 매주 월요일
 2. 매주 금요일 14:00~15:30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후원회 미사

· 5.12(목) 14:00 · 푸른군대 경당
 문의: 634-4820, 636-4819

묵상 관상 기도 피정과 미사

· 5.12(목) 14:00 · 가톨릭센터 3층 / 무료
 문의: 010-3332-8789(가르멜동정녀회)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모임

· 5.12(목) 14:00 · 부산 본원(오룬대)
 문의: 010-2059-6260(백기태 신부)

삼위일체 가족회 연피정

· 5.12(목) 10:00~17:00 · 삼위일체 수녀원
 문의: 463-7660

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녀회 기도 맛 들이기

· 5.13(금) 19:30~14(토) 아침미사 · 부산 본원
 대상: 37세 이하 미혼여성 / 문의: 010-8551-3312

에니어그램 하루 Workshop

· 5.14(토) 09:00~18:00 · 성심영성센터
 내용: 자아발견 여행 - 성격을 넘어 본질로
 문의: 581-3114(예수성심선교수녀회)

골롬반 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해외선교)

· 5.15(일) 14:00~16:00 · 구룡성당
 문의: (02)929-4841, www.columban.or.kr

자비의 회년 기념 하느님의 자비신심 묵상회

· 5.21(토)~22(일) · 영성의 집
 문의: (055)332-7004, 010-3847-27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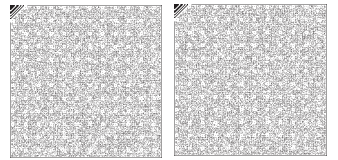
성모여고총동창회 제6회 Home Coming Day

· 5.21(토) 18:00 · 롯데호텔(서면) 2층 대연회장
 문의: 010-5015-2700, 010-8544-9799

재속프란치스코회부산지구형제회 회원 모집

대상: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따라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55세 이하 평신도 및 사제
 문의: 010-3643-1068(최병무)

수도회 성모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5.15(일) 14:00	칠곡수련원	010-3113-6219
성빈센트드블자비수녀회	5.15(일) 14:00	수원 본원	010-8833-8107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	5.28(토) 15:00	부산 명상의 집	010-8618-661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마리아학교 기초 과정 모집

· 5.17~8.2 매주 화요일 14:00~17:00(3개월)
 · 마리아 피정 센터 / 회비: 8만원(분납 가능)
 내용: 성경(교부, 역사, 전례)속의 마리아, 참된 신심, 봉헌 등 / 문의: 010-9620-4820, 634-4845 (우리은행 1006-301-276411 티없으신 성심)

환돌실버타운 신 · 증축 입주자 모집

신축 20평형 47세대, 증축 17평형~24평형 30세대 성당, 휘트니스센터, 사우나, 물리치료실, 각종 프로그램실, 부산성모병원 및 메리놀병원 연계
 · 부산 수영구 연수로 260번길 53(망미동)
 대상: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심신건강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문의: 758-6231

예수고난회 은인모임

· 5.14(토)~15(일) · 광주 일곡동 명상의 집 (광주에서 은인모임을 진행합니다)
 문의: (062)571-5004, 010-3579-7560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

· 6.10(금)~12(일) · 베네딕도영성관(대구 사수동)
 주제: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삶
 대상: 하느님 사랑을 느끼고 싶은 신자
 문의: (02)333-9898(한국CLC)

한비아와 함께 걷는 제주 자연순례(꽃지일)피정

· 7.7(목)~9(토)
 참가비: 30만원(항공료 제외), 선착순 마감
 문의: (064)796-9181(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젊은이선교체험(피지)

· 7.26(화)~8.5(금) / 문의: (02)924-3048
 대상: 고1~대학생, 청년 남녀
 경비: 200만원(유류할증료 및 세금 포함)

인간존중 · 생명사랑 정신을 구현하는
부산가톨릭대학교 학과 안내 ⑨
 21세기의 화두, 환경전문가를 양성하는
환경공학과
<http://www.cup.ac.kr>

부산성모병원 개원 10주년 기념
KNN 건강강좌 '어깨관절의 이해'
 5.16(월) 15:00 (* 경품추첨, 기념품 증정)
 해운대 센텀 신세계백화점 9층 문화홀
 문의: 933-7855, 7852(정형외과) / www.bsm.or.kr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가톨릭선학 복음문화나눔 행복안 세상
무료영화상영 가톨릭센터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더 테레사 일시: 5/16(월) 19:00
 내용: 세상을 감싸 안은 어머니의 이름 장소: 가톨릭센터 소극장 (9월 4일 시정 예정)
 18:00 후원 감사 미사(센터 경당) / 다과 / 영화 관람
 무료 / 단체 문의: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우편이나 팩스(629-8756),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

선비목집
 통영산 굴 코스요리 개시
 굴구이, 생굴회, 연어 샐러드
 굴전, 굴탕수육, 굴국밥
 입 안에 바다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 목 요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553-3929 동래 메리트 정문 옆 주차원

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

입소 상담
 환돌실버타운 **758-6231**
 환돌요양센터 **751-0561**
 로사사회봉사회 www.rosa.or.kr
 대표이사 맹진학(라파엘) 신부

라이프치과의원
 치의학 박사, 최 계 훈(바오로)
 치의학 박사, 박 찬 아(요한 금구)
원데이 임플란트
치아 살리기 치료
 해운대 31번 종점 맞은편
743-3334

바른성모안과
 망막(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망막혈관폐쇄), 백내장
 원 장. 최 배드로(한국망막학회 정회원)
242-0075
 서구청 옆 바른병원 3층

동래참사랑재활요양병원
광안참사랑재활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 · 한방 협진
 동래: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751-1515 김병희(야네스)

라파엘여행사
 9/19 성모님발원지(13일 389만원)
 9/22 이스라엘(9일 359만원)
 10/17 산티아고 도보순례(14일 389만원)
(02)778-8565

박숙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공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매, 햇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숙현 (에스텔) 의학박사
611-3339
 남천 지하철역 3번 출구, 대남빌딩 5층

내일N성형외과
 눈, 코, 유폴, 가슴, 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레이저
 최수중(루카)
 전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과장 / 교수
 상담 및 예약 **231-8088**
 부산시 서구청 옆 바른병원 2층